



## 러시아연구소-언어연구소 공동초청강연회 “Grammatical voice in Slavic languages”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11월 3일 언어연구소와 공동주최로 달하우지 대학교 (Dalhousie University, Halifax, Canada) 자스미나 밀리체비치 (Jasmina Milicevic) 교수를 모시고 “슬라브어의 문법적 태 (Grammatical voice in Slavic languages)”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밀리체비치 교수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 (Universite de Montreal)에서 2003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 프랑스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의미론, 어휘론, 사전편찬학이다. 주요 저서로는 이고리 멜츨 (Igor A. Melcuk) 교수와의 공저인 “고급 의미론 – 의미-텍스트적 접근 (An Advanced Introduction to Semantics A Meaning-Text Approach)” (2020), “세르비아어의 접어 (Serbian Clitics)” (2023) 등이 있다. 강연은 연사와 동반하신 알랭 폴게르 (Alain Polguere) 교수,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및 인문대학의 여러 교수들, 학부, 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강연의 핵심은 슬라브어 태 유형의 비교언어학적 분석이었다. 강연자는 다양한 슬라브어의 비교를 통해 언어에서 형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태를 유형화했다. 강연은 슬라브어의 지역적 구분과 함께 격, 곡용, 자유로운 어순, 접어와 같은 슬라브어의 특징들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이어 태의 유형과 정의, 슬라브어의 태, 태와 구문, 유사태 (pseudo-voice), 의미-심층 통사 구조-표층 통사 구조의 상호작용 방식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태의 정의와 설명을 위해서는 언어의 여러 층위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의미-텍스트 이론(meaning-text theory)의 방법론이 활용되었다.



태의 유형 역시 주어나 목적어 논항이 삭제, 강등, 인상된 심층 통사구조에 의미역이 사상된 결과에 따라 열두 가지 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졌다. 동사의 상과 타동성은 발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태의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열두 가지 유형 중 슬라브어에 문법적 범주로서 존재하는 일곱 가지 태 유형이 해당하는 예문과 함께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예문으로 제시된 슬라브어는 러시아어, 북러시아어 방언,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체코어, 북세르비아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크로아티아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등으로 남, 동, 서슬라브어를 포괄하는 풍부한 자료가 제공되었다. 다양한 언어 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능동-수동으로, 그 외에는 별개의 구문으로 소개되는 슬라브어 태의 외연을 넓히는 강연이었다. 동시에, 강연자 역시 지적했듯이 언어 간-언어 내 의역(paraphrase)과 관련해서도 학술적 함의를 지니는 강연이었다.

발표 이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이론적 틀과 용어 설명에 관한 질문이 다수였다. 질의응답의 시작은 폴게르 교수가 화제-초점과 태와의 정확한 상관관계에 대해 질문했고, 두 요소가 연관성을 가질 수 있으나, 어느 한 범주가 다른 범주를 포함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으셨다. 이후 노어노문학과 송은지 교수는 러시아어의 &#8211;sjja/형용사 단어미형 수동태의 의미적 차이 및 태의 명제 의미, 강연의 이론적 틀에서 화용적 층위의 정확한 지위, 소개된 슬라브어의 태 범주들의 선행연구에서의 명명, 슬라브어 태의 등어선에 대해 질문했고, 폴란드어 수동태 구문이 독일어로부터 파생했을 가능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불어불문학과 최윤희 교수는 상호재귀 구문과 재귀대명사의 차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으며, 학생들 역시 태와 주어 생략(pro-drop)의 차이, 태융합의 개념을 재차 묻기도 했다. 노어노문학과 정하경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언어 보편적인 심층구조의 이해에 이바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질의응답이 마무리되었다.

